

퇴경당 권상로스님 미발표 유고발굴

본지 창간 2주년 기념 황천오씨 제공

근대 한국불교학의 거두 퇴경당 권상로스(退耕堂 權相老·1879-1965)님의 유고(遺稿)가운데 발표되지 않은 방송원고와 문집, 필사본 등이 발견됐다. 이 원고는 권상로스님의 생애와 이자 제자였던 황천오(黃天午·미국 LA거주)씨가 본지 창간 2주년을 기념해 스님의 유고 가운데 일부를 본사에 제공함으로써 알려졌다.

황씨가 소장하고 있는 권상로스님의 유고는 방송원고 '수양강화(修養講話)' 38편 3백51매, 가송집(歌謠集) 2백31편 2백50매, 화제(畫題)를 모은 (서화방(書畵坊)) 필사본 등 방대한 양이다.

이 가운데 본사에 보내온 유고는 경성중앙방송국에서 방송한

라 세시종속, 인생관 등 생활전반에 걸쳐 23의 강연 내용이다. 1939년 10월 28일 방송한 '불교윤리관'에서 스님은 '불교에서의 윤리는 은(恩)을 중심골자로 한다'며 '부모 중생 삼보에 보은하는 실천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단오의 명절'(1946년 5월 5일 방송)에서는 단오의 기원과 어원, 전설 등에 대해 설명하고 민간의 풍속을 소개해 당시 민속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황씨는 이외에 방송원고로 '육방예배(六方禮拜)' 복을 아껴라' '식(食)에 대하여' '졸업과 수양' '오대산사찰 이야기' '가장 불교' '사찰제도에 대하여' '부모의 길' 등을 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故 권상로스님

새로 발견된 권상로스님의 유고에 대해 심재열씨(원효사상연구소장)는 "이처럼 방대한 양의 유고를 접할 수 있게 되어 후학으로서 감회를 느낀다"며 "파편식 일내에 스님의 유고가 널리 일내에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상로스님은 불교학뿐 아니라 전학계의 거봉으로 불화 단정 산수 목화에도 뛰어났다. 불교중앙총무원 기관지(불교일보)사장을 역임하는 등 불교인론의 선구자이기도 하며 중앙불교전문학교에서 불교사와 불전을 강의했다. 저서로 <한국사찰전서> 등 30여종 90여책이 있으며 90년 후학들이 스님의 미발표유고를 모아 <퇴경당전서(退耕堂全書)>전 10권(이화문화사刊)을 발간했다.

한편 황씨는 미발표 유고와 함께 '참회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본사에 보내왔다. 황씨는 "미국 이민중 <퇴경당전서>를 발간하면서 소장하고있던 자료를 보냈으나, 93년 서울에 남겨놓았던 책 속에서 이 원고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내용의 편지의 말미에서 "전서 발간해 원고를 보내 빠짐없도록 하지 못한 불민(不敏)의 죄를 참회하는 마음으로 현대불교신문 창간2주년 특집호에 목차와 원고 일부분을 보낸다"며 "보유권이라도 출간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불교윤리관' '단오의 명절' 등 방송원고 '38편' '가송집' 231편도...전서체 결들인 '서화방' 눈길

'불교윤리관'과 '단오의 명절'이 있으며 <가송집>에서 歌 3편, 詩 2편, 頌 2편을 선별해 보내왔다. 또한 <서화방> 필사본 표지와 화과부(花菓部)일부, 세조의 원각사불사동참문과 원각사 배판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이전에 발굴된 <가송집>은 대부분 불교와 관련된 歌와 頌을 모은 문집으로 '지족가(知足歌)' '부설거사 열반송' '부설거사 오도송'과 옛 선사들을 찬(讚)한 일연스님의 글이 다수 있다.

<서화방>은 권상로스님의 출가본사인 금릉사내 화장암(華藏庵)에서 필사한 것으로 화제(畫題)를 인물(人物) 화과(花果) 글수(畵數) 산석(山石) 등 4부로 나누었으며 스님의 자(字)가 지일(之)임을 밝히고 전서체를 결들여 다양한 스님 글씨를 보여주고 있다.

이중엽 기자



◇ 황천오씨가 본사에 보낸 권상로스님의 유고 일부분. 이 원고들은 권상로스님이 직접 원고지에 쓴 것으로 90년 <퇴경당전서> 발간때 빠져 일내에 공개되지 못했다.

유고집 소장자 황천오씨는 서지학자... 해방전 만주서포교사 다라니경 파멸훼손 글씨 복원동참

퇴경당 권상로스님의 유고를 본사에 제공한 황천오(黃天午)씨는 1918년 경북 문경성으로 김용사에서 권상로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38년 김용사 불교대학교를 졸업했다. 41년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해방전문학교를 졸업하고 41년 만주 무순포교당에서 포교사로 활약하며 해방후에는 동국대도

불교는 그 범위가 호대(浩大)하고 이취(理趣)가 심오(深奧)하니만큼 어떠한 일문제(一問題)를 들더라도 간단하고 용이하게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니다. 그럼으로 지금(只今)에 말습니라는 불교윤리관이라는 것도 그 의지와 실천을 분문적(分門的)으로 말습니하면 도저히 한 시간에 말습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은 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대략 말습니하 습니다.

불교의 윤리를 3문(三門)에 분(分)하여 하나는 이론문(理論門) 또 하나는 실천문(實踐門)이라하여 이론과 실천 두가지의 요지를 잠간(暫間) 말습니하 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방법을 말습니하 습니다. 이론과 실천과는 둘(二)이면서 둘(二)이 아닙니다. 이론문이란 것은 불타의 도학(道學)으로 오인(吾人)을 대(對)하여 교시(敎示)하신 것이니 환인(換言)하면 절대계(絕對界)로부터 상대계(相對界)를 향(向)하신 전서(顯示)이고 실천문이란 것은 오인(吾人)으로부터 불타의 지위에 도달하라는 진로(進路)입니다. 그럼으로 이 두선(二線)은 곧 일선상환반(一線上往返)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타가 상대계의 오인(吾人)을 절대계로 환환(喚喚)하시는 교시에 따

경목적(究竟目的)이 없으므로 도리어 넘어 평범한대로 떠나고 말아서 결국 고금인류(古今人類)를 따져 본다면 충신효자 열부신우(忠臣孝子烈婦信友)보다 불충불효(不忠不孝)하고 무정조 무신의(無貞無義)한 사람이 더 많은 원인이 아닌가 합니다.

불교에서는 윤리의 중심골자를 '은(恩)으로 하여 심지관경(心地觀經) 가르대는 국왕은(國王恩), 부모은(父母恩), 중생은(衆生恩·社會恩), 삼보은(三寶恩)의 사중(四重)으로 실하였고 유가론(瑜伽論)에는 모두 처자 노 비 부우 형제 친속 재신(母父 妻子 奴婢 朋友 兄弟 親屬 帝臣) 오종(五種)으로 실하였고 그 외에도 6종은 설(六種總說)도 있고 7종은 설(七種總說)도 있습니다. 대개는 4은(四恩) 오은(五恩)에 넘지않고 그 구경 목적은 성불도생(成佛度生)에 두어 불교의 전생명(全生命)이라 할 오계(五戒) 십계(十戒) 등이 전부윤리의 조직인(組織)인 법망경(法網經)에서는 '계명위호(戒名爲孝)'라하고 열반경(涅槃經)에는 '중생어아 유은자 약무중생 若無衆生 不能成我普賢行故'라 하고 대방광불보은경(大方便佛報恩經)에는 '여래위호 양부모 지은보은 고 금독속성이아니라삼삼삼보리(如來

말할지라도 불교에서는 윤리, 도리, 학술등등 모든 방면을 통하여 선(善)과 악(惡) 두가지를 분(分)합니다. 칠불계(七佛敎)에 '제악막작 중생봉행(諸惡莫作 衆善奉行)'이란 것이 불교의 유일한 법문임으로써 선악으로 일체처(一切處)에 표준을 삼으며 선악을 혹은 사정(邪正), 혹은 열정(染淨), 혹은 흑백(黑白), 혹은 복(福)과 비복(非福), 혹은 도(道)와 비도(非道), 혹은 보행(報行)과 비보행, 혹은 유유(有漏)와 무유(無漏)등으로 명명하고, (-중간 생각-)

이론문으로는 이렇지마는 실천문으로 두가지 행법(行法)이 있습니 합니다. 이상적(理想的) 실천이고 또 하나는 사실적(事實的) 실천이라 이상적 실천에는 좌선 관념(坐禪 觀念) 등의 실천으로 넘지않고 그 구경 목적은 성불도생(成佛度生)에 두어 불교의 전생명(全生命)이라 할 오계(五戒) 십계(十戒) 등이 전부윤리의 조직인(組織)인 법망경(法網經)에서는 '계명위호(戒名爲孝)'라하고 열반경(涅槃經)에는 '중생어아 유은자 약무중생 若無衆生 不能成我普賢行故'라 하고 대방광불보은경(大方便佛報恩經)에는 '여래위호 양부모 지은보은 고 금독속성이아니라삼삼삼보리(如來

수양강화-불교윤리관 (1939년 10월 28일 경성중앙방송 원고)

불교는 실천주의... "도덕실행 근본 報恩"

라서 상대계의 오인(吾人)을 절대계로 추향(趨向)하는 진로를 거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윤리를 설명하려면 불가불 먼저 보통윤리(東 西 洋 윤리)와 비교부터 말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겠습니까. 지금에 잠간 두어마 되로 간단하게 불교윤리와 보통윤리의 통곡(通曲)과 경중(輕重)을 비교하여 말습니하겠습니다.

서양윤리는 개인적(個人的) 입장에서 발달된 것이요 동양윤리 즉 유교는 리는 가족적(家族的) 입장에서 조직(組織)되어 불교윤리는 사회적 세계적 우주적 입장에서 된 것입니다. 서양윤리는 우리 습관상에 대단(大端)이 점염(點染)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여겨서는 설명을 약(略)하기로 하고 오인(吾人)의 습관상에 많이 저저잇는 동양윤리를 말습니하건대 근의신중, 부자자효, 형우제공, 부하부순(君親臣忠, 父慈子孝, 兄友弟恭, 夫和婦順)등등이 가족제도로 뉘어서 국가도 한 대가쪽으로 불 뉘어나라 오음(五倫)을 혹은 오상(五常) 곧 윤상(倫常)이라 하여 일용(日用)에 상행(常行)하는 평상범상(平常凡常)한 관념으로 행하는 것이 마치 기시 갈음 곤란한 구 서갈(飢寒 渴飲 困眠 寒暑 寒暑) 등 행사와 가치 조공도 특수한 관념을 가지지 안게하여서 평범하게 설명할 때에는 대단히 용이하게 가르치고 용이하게 행할 것 것입니다. 기시(其 實)는 어떠한 중심골자와 어떠한 구

爲孝 養父母 知恩報德故可稱 今得速成 多難三難三難 大하고 종말신사(宗廟神師)도 '대효석가 존누검보친은 적인성정각(大孝釋道 尊親劫報親親 種因成正覺)'이라 한 등등 이모든 경전에 한량없이 만습니니다.

일것 생각한다면 '은(恩)'이라는 골자와 '성불'이라는 목적에 의하여 윤리를 말하는 것은 마치 무슨 타산적(打算的)인 듯 하지마는 일례를 든다면 동양윤리에 있어 말위(末位)에 잇는 '봉우유신(朋友有信)'을 말습니하건대 그저 평범범상(平常凡凡)하게 '봉우(朋友)에는 신(信)이 잇어야 한다'고 교시하는 것 보담 봉우 사이에는 책선보인(責善輔仁)하는 은(恩)이 잇다. 그럼으로 봉우의 은(恩)을 감기 위하여 신(信)이 잇어야 하고 봉우간에 신이 잇습니하면 그 신을 말미암아 모든 신심이 견고하여서 필경성불(必竟成佛)하는 이라 하여 보은원념(報恩願念)으로 신을 지하고 수도하는 정진으로 신에 불뉘어 되는 것입니다.

요지는 이에 그치고 이론과 실천으로 말습니하건대 서양철학자들 윤리학은 대개 이론에 치우치고 실제에 소홀한 듯 하며 동양의 윤리 곧 공맹(孔孟)의 도덕실행 가튼 것은 실제에는 적절하다 할지라도 이론에는 결함한 관(觀)이 잇지마는 불교의 윤리관으로 말하면 이론이도 이론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실제에는 실제에 적절합니다.

이론문(理論門)의 명목만을 간단히

실천으로 인의에지신(仁義禮智信)의 오상(五常) 혹은 부자, 군신, 부부, 장유, 봉우(父子 君臣 夫婦 長幼 朋友) 사이의 친의별서신(親親別序信)의 오륜의 명목을 세우지마는 불교 윤리의 실천요목은 5계, 8계, 10계, 48계, 250계 등으로 책략(策劃)하였습니 곳 이른바 3천위의(威儀)와 8만세행(細行)의 정부가 이 윤리를 중심으로 한 것이라 실천의 전제는 지은(知恩)이요 실천의 정로(正路)는 보은(報恩)이니 군주나 부모나 삼보나 중생이나 사장(師長)이 나에 대하여 지은 보은을 말습니하건 한 하도 만호잇가 팔분 시간에서 인중할 엄두도 내지도 못습니니다. (-중간 생각-)

이러한 문구가 불경에는 재재처처(在在處處)에 산견(散見)하였습니니다. 이런 문구를 독(讀)하면 보은이 도덕실행에 인연필이 명저(明著)하게 될 것입니다. 보은의 사상이 잇는 자는 도덕을 실행하는 것이요 보은의 관이 업는 도덕을 실행 못하는 것이니 도덕이니 윤리니 무엇인가 보다 결국에는 감사적 보은사상(感謝的 報恩 思想)을 고통(動動)하면 자연(自然)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명연이(名聞利養)를 구하는 위도덕(爲道德)이나 가윤리(假倫理)는 도리어 업는 것만도 못습니하는 것을 말습니하건 동시에 불교는 무엇인지 실천주의(實踐主義)를 결하여 말습니하는 것입니다.

불자의 긍지, 신명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지사·지국(구독접수처) 안내

언론분사에 참여하여 범공덕을 짓고 포교의 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현대불교 신문 구독접수처를 안내합니다.

지역	주소	전화	팩스
부산	부산시 동구 범일2동 830-267 동보빌딩 4층	(051) 634-5114	634-5188
대구	대구시 중동 532-154	(053) 768-8008	766-3678
광주	광주시 서구 쌍촌동 837-4	(062) 375-9986	371-7544
경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398-6	(032) 613-4027	665-0965
제주	제주시 이도1동 1688-1 종합불교사	(064) 22-4878	55-9800
사천	경남 사천시 선구동 58-26 관음오행생식요법원	(0593) 32-5160	
파주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능안리 108-1	0348)945-6815	945-6815
춘천	강원도 춘천시 의의동 141-3	0361)241-0633	
영주	경북 영주시 휴전동 705-7 4/2	(0572) 34-3429	34-4489
안산	경기도 안산시 사동 1314-15	0345)408-0961	409-4589
		012-946-3579	
의정부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1동 풍진빌라 3동 103호	0351)878-2889	
강릉	강릉 노담동 노암1주공 2동 210호	0391)647-9317	
목포	전남 목포시 상동 하당 비파 APT 201-1304	0631)281-2534	
공주	충남 공주시 신관동 611-15 묘한	0416) 55-0020	
고양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63 키크APT 810-902	344)912-2323	
강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64-11	(02)3664-7929	

현대불교신문 구독 신청은 가까운 지사·지국(구독접수처)로 문의바랍니다.

카톨릭 신부의 충격적인 고해성사!
어느 동성애 신부의 고백.

살의 핵이 스며 있는 재미있는 멜로 드라마
- 김혜리(씨네 21)

나약한 삶이 인간의 한계이기에 신앙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
- 정승희(일간 스포츠)

<프리스트>, 혹은 인간의 세계에 대한 영회적 탐구
- 서동진(문화 평론가)

미국에서조차 개봉을 두려워하고 벌어진 문제적
· 에너버러 국제영화제 마이클 파벨상 수상
· 토론토 국제영화제 피플스 초이스상 수상
· 최우수 영구 영화로 선정
<프리스트>에 대한 찬사는 이밖에도 많다.

한국어판 독점출간

화제의 신간

PRIEST

프리스트

지미 맥거번 지음 27,000원

주문해도 전국서점 절찬리 판매중

도서: 캐임의소리 전화: (02)444-3575, 444-3576
출판: 캐임의소리 팩스: (02)3436-1064

마힌곳을 편안하게 통하게 해주는 氣針法!

파-워침 요법

보건복지부 허가 제 55호 보건복지부 품목허가 제호

- 파-워침 요법은 전혀 피부를 찌르지 않고, 압痛점(경혈)을 자극하여 통증을 조절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신속하고 획기적인 동양의학방법입니다.
- 파-워침 요법은 머리, 허리, 어깨, 목, 관절, 팔, 다리, 무릎 등 불편한 곳에 대고 지그시 눌러주면 즉석에서 편안해지는 체험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 허리, 무릎, 관절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반영구적제품>

- 머리가 심하게 아프십니까?
- 목덜미가 항상 찢어지십니까?
- 어깨가 몹시 아프고 팔이 뒤로 안올라가십니까?
- 손목과 팔이 저리십니까?
- 허리가 몹시 아프십니까?
- 팔꿈치가 몹시 아프십니까?
- 무릎에 힘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 다리가 저리고 떨기십니까?
- 엄지 발가락이 많이 아프십니까?
- 얼굴이 달아오르고 어지럽습니까?
- 늘 피곤하고 의욕이 없습니까?
- 복부기 항상 더부룩하고 힘이 무릅십니까?
- 전립선으로 고생하십니까?
- 치료를 받아도 재발 하십니까?

<파워침 종합세트> 300,000원

◎ 파워침 / 원기 보존법 책자를 우송해 드립니다.

天一氣功硏究會 파-워-침 硏究學會
전화문의 02) 455-6944(대)